



“반갑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AI), 하루빨리 물러가라!”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지난 4월 1일 김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확산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전북과 전남은 물론 경기도의 평택까지 5개 시·군 17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고, 아직도 15곳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손실액만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피해는 2006년의 규모를 압도할 전망이다. 여기에 간접 손실액까지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곳곳에서 AI 의심 신고가 끊이지 않아 농민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I로 기르던 닭과 오리를 모두 매몰처분한 농민들은 생계가 걱정이다. 아직까지 보상이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데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심 신고로 AI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불투명해지면서 축산농민들은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 계속 피해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하루 빨리 이번 AI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고 향후 현실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특별방역기간이 2월말에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3월이 지나고 4월 1일에 되었다. 만우절에 거짓말이 아닌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보도다. 앞이 캄캄한 뉴스다. 2003/4년과 2006/7년의 악몽이 뇌리를 스친다. 작년에는 발생 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약 5개월간을 AI와 씨름을 하였다. 금년에는 처음 김제시 용지면 신라계농장에서 발생한 이래 현재 19차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 충남 논산까지 확산됐다는 보도다. 하루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우리는 지금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병원성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 본회는 여러 가지 예찰활동방법과 긴급행동요령(SOP)을 요약하여 알리고, 발판 소독조 설치와 출입자통제 및 소독철저 등의 홍보를 계속해왔으나 얼마나 실천할지는 미지수이다. 어느 농가에서는 출입구의 차량소독기가 망가져 있는가 하면,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지 않은 농가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중순에, 프랑스 그리므드사의 육종기술자인 로랜드 버나드 박사가 회원농장을 방문하면서 기술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버나드 박사는 농장 방문 후 느낀 점 중 첫째가 질병 방역에 대한 시설이 미약하며, 방역에 소홀한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방역복을 비치한 곳이 없어 놀랐다고 하였다.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는 농가가 많지만 외국 전문가가 볼 때는 허술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AI 전파의 양상을 보면 처음 발생한 김제시 용지면과 정읍시 영월면 그리고 영암군 신북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사람이 잘못하여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역학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동 통제된 지역에서 농장주들이 모임을 갖거나 검문절차 없이 차량이 드나드는 등 부주의에 의하여 확산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회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방역기

관에서 권고하는 행동지침에 꼭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오염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에서 살처분된 오리마리수는 약 170만마리에 육박하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신고가 없어야 조속히 종식될 것인데 매일 여기저기서 의심신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AI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본회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살처분된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적정 가격 건의, 이동 및 경계지역에 있는 오리 수매시 수매 가격 건의, 협회 홈페이지와 각 지회를 통한 수매방법 홍보, 과대·오보 및 혐오성 보도 억제를 위해 호소문을 국내 언론사 50여 개소에 발송과 항의 전화, 메이저 방송3사(KBS, MBC, SBS) 항의방문 등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론에 대해 자제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근본적으로 AI가 발생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런데 전례가 없이 4월에 발생한 것이나, 과거의 경우 오리는 죽지를 앓았는데 즉시 폐사하고 있으니 참 이상한 노릇이다. 올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그간 내성이 생겼는지 따뜻한 날씨는 아랑곳도 않고 더 막강한 기세로 오리와 닭을 잡고 있으니 그만큼 우리는 더 소독작업과 예찰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AI를 하루 빨리 퇴치하여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오리 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과거 2003년의 시련, 2006년의 뼈아픈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오리 산업의 연간 생산액을 7,400억원이나 달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합심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믿는다.